

석사학위논문

제주도내 고등학교 음악과 교구·설비 실태조사

A Survey on the Teaching Aids and Facilities for Music
Class at High School in Jeju Province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고 선 왕

석사학위논문

제주도내 고등학교 음악과 교구·설비 실태조사

A Survey on the Teaching Aids and Facilities for Music
Class at High School in Jeju Province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고 선 왕

제주도내 고등학교 음악과 교구·설비 실태조사

A Survey on the Teaching Aids and Facilities for Music
Class at High School in Jeju Province

지도교수 김 미 숙

본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고 선 왕

2005년 2월

고 선 왕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①인

심사위원 _____ ①인

심사위원 _____ ①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년 2월

목 차

논문 개요	iii
1. 서론	1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나.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다. 선행연구	4
2. 고등학교 음악과 교구·설비	7
가. 고등학교 음악교육	7
나. 교과서 제시 악기 비교	14
다. 전국 시·도 기준 비교	19
라. 제주도 기준	28
3. 음악과 교구·설비 실태 조사	30
가. 설문조사	30
나. 조사결과	32
다. 정리	42
4. 결론 및 제언	44
참 고 문 헌	47
설 문 지	49
ABSTRACT	52

표 목 차

<표-1> 이해 영역	10
<표-2> 활동 영역	11
<표-3> 교과서 제시 현악기	15
<표-4> 교과서 제시 건반악기	16
<표-5> 교과서 제시 관악기	17
<표-6> 교과서 제시 타악기	18
<표-7> 시·도 기준 제시 관악기	21
<표-8> 시·도 기준 제시 현악기	22
<표-9> 시·도 기준 제시 건반악기	23
<표-10> 시·도 기준 제시 타악기	24
<표-11> 전자매체 교구·설비	25
<표-12> 일반 교구·설비	27
<표-13> 교구 기준	28
<표-14> 설비 기준	29
<표-15> 설문지 구성	30
<표-16> 조사대상 학교 성격	31
<표-17> 음악실	32
<표-18> 음악감상실	32
<표-19> 교구·설비 기준 지각유무	33
<표-20> 교구·설비 실태	33
<표-21> 부족한 교구 건의 경험	34
<표-22> 설비종목 구비 현황	35
<표-23> 일반교구 구비 현황	36
<표-24> 서양악기 구비 현황	38
<표-25> 국악기 구비 현황	39
<표-26> 수업시 어려운 점	40
<표-27> 실기연수 경험	40
<표-28> 중점지도 분야	41
<표-29> 특별운영 음악부서	42

논문개요

이 연구는 제주도내 고등학교가 제주도 교육청이 제시한 학교 교구·설비기준을 바탕으로 음악학습 현장에서 교구·설비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분석해봄으로써 고등학교 음악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구·설비 조사에 앞서 고등학교 음악교육의 의의를 살펴 보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 근거한 고등학교 음악과의 목표와 내용 및 방법을 알아보았으며 검정교과서인 8종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서 기악 관련 단원에 제시된 악기들을 비교하였다. 전국 각 시·도 교육청 고시를 근거로 음악과 교구·설비 기준을 비교하였으며 제주도의 고등학교 음악과 교구·설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본 연구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교구·설비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29개 고등학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26개)가 음악실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음악감상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8개)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28명)가 음악실과 마찬가지로 음악감상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구·설비 기준에 대해서는 많은 교사들(25명)이 알고 있었으나 그 중 대부분의 교사들(22명)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교구·설비 실태에 대해서는 많은 교사들(16명)이 낙후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그 중 대부분의 교사들(10명)이 학교 관리층의 인식 부족때문이라고 하였다. 교구·설비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필수 교구·설비 종목을 모두 갖춘 학교는 단 한 군데도 없었다. 4개 학교를 제외한 25개 학교가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음악부서가 있었으나 그 악기를 활용하지 않는 학교가 많았다.

조사 결과 제주도내 고등학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부족한 교구의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갖추어진 교구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

며, 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에서는 교사들의 요구를 적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둘째, 앞으로의 교육은 주입식과 암기식의 수동적인 교육으로부터 탈피하여 학생 중심의 적극적인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셋째, 많은 교사들은 교구·설비의 부족과 학생들의 낮은 호응도로 인해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넷째, 교사 스스로 실기 지도를 위한 연수를 받아 유능한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는 다양하고 유익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고등학교 음악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교구·설비를 갖추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정책의 개선과 재정적 지원의 뒷받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시사점들을 교육 현장에서 구체화하여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1. 서 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상은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또한 변화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지능이 높은 학생과 우수한 교사가 확보되어 있다해도 교육적 환경이 열악하다면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다. 이는 음악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학생들이 음악수업에 들어오면 흥미를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음악교육 환경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음악교과는 타교과와는 달리 우리의 정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특수성이 있으며 그러한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많은 교구·설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음악교육 환경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구·설비라 할 수 있다. 교구·설비의 보유정도와 활용도에 따라서 학생들의 음악 성취도가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수적이고 일방적인 수업은 더이상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없으며 흥미없는 학습은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음악 수업에서 다양한 교구·설비의 활용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그러므로 교구·설비의 낙후 및 부족으로 교사의 학습지도와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지장을 주어 교육성취에 손해를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음악교육에서 각종 교구·설비의 활용은 음악교육의 현실감을 최대화 시켜주고 장기적으로 볼 때 적은 비용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음악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뿐

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강한 음악적 호기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시킨다. 음악교육에서 교구·설비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음악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효과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고등학교 시기는 정규적이고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다. 그러나 음악수업의 시수가 줄어들고 교육관계자들은 점점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있으며 학생들마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음악수업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개별성·다양성·상대성을 존중하는 교육, 즉 열린교육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의 교육 현실은 이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음악교과는 타교과에 비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음악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관계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어지며 과목 특성상 여러 가지 교구와 설비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제주도내 고등학교가 제주도 교육청이 제시한 학교 교구·설비기준을 바탕으로 음악학습 현장에서 교구·설비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분석해봄으로써 고등학교 음악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앞에서 제시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고등학교 음악교육

교구·설비 조사에 앞서 고등학교 음악교육의 의의를 생각하여 보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 근거한 고등학교 음악과의 목표와 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을 알아보았다.

(나) 교과서 제시 악기 비교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인 8종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서 기악 관련 단원에 제시된 악기들을 조사하였다.

(다) 전국 시·도 기준 비교

전국 각 시·도 교육청 고시를 근거로 음악과 교구·설비기준을 비교하였다.

(라) 제주도 기준

이 연구의 설문조사 지역인 제주도의 고등학교 음악과 교구·설비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마) 고등학교 음악과 교구·설비 실태 조사 및 문제점

교구·설비에 관해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정리하였다.

(2) 연구의 방법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악기를 알아보기 위해 선택과목인 음악과 생활을 제외한 교학사, 대한교과서, 두산, 박영사, 세광음악출판사, 태성, 천재, 현대음악출판사의 8종 음악교과서에서 기악관련단원에 제시되고 있는 악기를 모두 조사하였다.

전국 시·도 교구·설비기준을 비교해보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접속, 관련자와의 전화문의, 메일전송등을 통해 교구·설비 기준이 없는 경기도와 현재 개정중인 충청북도를 제외한 14개의 시·도를 조사하였다.

교구·설비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는 18개항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발송 및 방문하는 방법으로 제주도 전체 29개 고등학교인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 남녕고등학교, 남주고등학교, 대기고등학교, 대정고등학교, 대

정여자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서귀포고등학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신성여자고등학교, 애월상업고등학교, 오현고등학교, 제주공업고등학교, 제주과학고등학교,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제주상업고등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제주제일고등학교,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중문상업고등학교, 표선상업고등학교, 한림고등학교, 한림공업고등학교, 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2004년 9월 1일(수)부터 22일(수)까지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는 좀 더 포괄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연구를 위해 허락된 여건상 제주도내의 29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보편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다. 선행연구

김종필(1996)의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현 중학교 음악 교재교구 보유 현황 및 활용에 관한 분석 연구」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학습상황을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연구이다. 교재·교구 보유 현황과 활용도 및 애로점을 서울 지역의 156개 중학교 음악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조사·분석하였다. 그러나 단지 6차 교육과정을 그대로 제시하였을 뿐 6차 교육과정과 이 논문의 조사항목인 교재·교구와의 관련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설문 항목의 설정기준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진실의(1992) 「음악과 시설 및 교구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음악과 시설 및 교구 확보 실태, 확보된 음악과 시설 및 교구의 활용도, 확보된 음악과 교구를 바탕으로 한 음악교사들의 실기지도 실태 및 애로사항, 고등학교 교구 및 설비 기준령에 대한 음악교사들의 인식, 음악교사들의 기악 실기지도를 위한 기능연수 실태를 설문조사 하였

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은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음을 볼 때 관련기관과 관련자들의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이기용(1999)의 「중학교 음악과 시설 및 교구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했다는 것 외에는 이진실의 논문과 매우 흡사하다.

지용호(1997)의 「중학교 음악수업에 있어 기악학습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기악분야에 대한 학습활동과 현재 중학교 음악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악학습활동을 학생들의 흥미도, 선호도, 평가에 대한 반응, 교구 교재의 활용도의 네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설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학생들 관점에서의 음악 수업 실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강식(1999)의 「도시와 농촌 학생들의 음악교육 환경에 대한 비교연구」는 도시와 농촌의 음악교육 환경을 가정·학교·사회로 나누어 각각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분석하고 비교·연구하였다.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음악의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고 이 두 환경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환경이므로 어느 한 가지도 무시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설문조사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연주단체의 유·무, 연간 음악회 개최횟수 및 유형, 지역 음악경연대회, 학교 음악 감상시설에 관한 질문은 보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학생들보다 교사가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미선(2000)의 「중등학교 음악실 학습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는 음악교육 환경 중 음악실의 면적, 구조 및 음향에 관한 연구이다. 이 논문을 살펴보면 음향학적인 관점의 ‘음’으로부터 음의 울림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이르기까지 음악적·건축학적으로 매우 상세히 연구했음을 알 수 있다. 논제가 ‘중등학교 음악실 학습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임에 반해 연구범위를 공간에 국한시켰다는 점이 아쉬웠다.

성미선(2002)의 「중학생의 음악적 성향 및 환경조사 분석」은 서산시의

음악적 환경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음악적 혜택의 범위와 위치, 가정·학교의 음악적 환경의 실태를 시와 읍·면으로 구분하였고 연구 대상 지역의 현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조사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구·설비 실태를 조사한 연구는 김종필, 이진실, 이기용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러나 제주도를 대상지역으로 한 연구가 없었고 각 시·도의 교구·설비기준을 비교하거나 교과서 제시악기를 비교한 연구도 없어서 이 연구를 하고자 한다.

2. 고등학교 음악과 교구·설비

가. 고등학교 음악교육

(1) 의의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관습적인 존재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음악은 인간에게 그 시대의 감각을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즐거움을 주며,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음악교육이다. 피타고라스는 음악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세계인 영혼이 정화되어지고 육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룬다고 하였고, 플라톤은 국민의 교육은 음악교육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교육은 미적 감정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하였다.

음악교육은 음악을 인간문화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인간이 음악과 함께 생활하면서 음악을 수용하여 육체적, 정신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음악교육은 개개인의 타고난 모든 음악적 재능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발달시키는 것이며 아울러 음악적 행위와 음악의 영향을 통해서 사회에 적합한 인간으로 교육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간으로 육성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¹⁾

음악 학습은 인간과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음악 작품 및 활동의 예술적 가치를 이해하고 그 효용적 기능을 이용하도록 도와 줌으로써 학생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그 영역을 넓여준다. 또한 다른 사람의 느낌과 감정, 창의적인 활동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능력과 태도를 마련해 주며,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

1) 김종환(2004), 『음악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p.42.

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에게 자기 실현의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이 창조해 온 음악 문화 유산의 특질을 이해하게 하는 한편, 여러 나라들의 음악 문화가 지니고 있는 보편성과 특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새로운 음악 문화 창건의 바탕을 마련해 준다.²⁾

그러므로 음악교육은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청소년기는 중요한 육체적, 지적, 감성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며, 고등학생은 청소년기 중 인격형성을 좌우하는 마지막 시기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뿐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쉴 수 있고 건전한 취미 생활을 하며 올바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려가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잘못된 문화를 접하기 쉽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더욱더 음악교육을 중요시해야 한다.

청소년기는 흔히 개개인이 뚜렷한 개체로 성장하고, 자아를 발견하고, 강한 탐색 욕구, 왕성한 도전감을 지니는 시기로 특징지어지며, 이러한 특성들은 그들로 하여금 학교의 음악 학습과 학교 내외의 음악 활동을 통해 견실한 음악적 성취를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청소년기의 그러한 일반적인 인간적 특성들이 음악이라는 특수한 예술 형태와 활동에 작용함으로써 그들은 또 다른 모습의 개체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³⁾ 그러므로 청소년기는 음악적 효과를 가장 크게 거둘 수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일반교과는 이성계발에 필요한 과목인 반면 예능과목은 감성계발에 필요한 과목이므로 어느 한 가지만 중요시 되어서는 균형있는 인간이 될 수 없으나 아직까지 한국은 이성계발에 치중하여 교육하고 있다. 또한 많은 고등학생들이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하고 어떤 악기 하나라도 능숙하게

2) 이홍수(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p.27.

3) 상계서, p.277.

연주할 수 있기를 원하며 음악을 더 많이 알고 싶어한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현실을 볼 때 청소년기 중 성격형성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전공이 아닌 이상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고등학교의 음악교육은 음악에 관한 최소한의 교양을 기르는 초보적인 단계에 조차 머무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시기의 음악교육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성을 계발시키는 다른 일반교과 교육 이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2) 목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제7차 교육과정의 음악과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다양한 악곡과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음악적 정서를 풍부하게 한다.

가. 음악의 구성 요소를 이해한다.

나. 가창, 기악, 창작, 감상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른다.

다.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여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른다.

위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성 계발, 창의성 계발, 음악적 정서 함양을 총괄목표로 하고 세 개의 하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위목표 ‘가’항은 이해 영역의 목표로서 음악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핵심목표라 할 수 있는 하위목표 ‘나’항 즉,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음악성과 창의성 계발은 다양한 음악을 듣고, 악기나 목소리를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고, 반응하고, 들으며 음악적 내용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등의 수업과정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주어진 문제를 실천적이고, 창의적이고, 일관성 있게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하위목표 ‘다’항은 음악 학습의 정의적 영역의 목표로서 음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고, 나아가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길러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기며 사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3) 내용

<표-1> 이해 영역

구 분		고등학교 1학년(10학년)
이 해	리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유형의 박자 ◦ 여러 가지 장단 ◦ 리듬꼴의 발전과 변화
	가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계에 따른 가락의 구성과 여러 형태 ◦ 여러 가지 음계 ◦ 민요 음계 ◦ 시김새
	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부 조직 ◦ 여러 조의 3화음, 7화음 ◦ 화음 진행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락의 발전과 변화 ◦ 다양한 시대, 문화권의 악곡 형식
	셈여림	◦ 악곡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셈여림의 변화
	빠르기	◦ 악곡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빠르기의 변화
	음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창법에 따른 목소리와 음질의 변화 ◦ 여러 가지 주법에 따른 악기 소리와 음질의 변화

제7차 교육과정의 이해 영역에서는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음색, 빠르기, 셈여림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학교급별에 따라 학습되어야 할 음악 요소를 상세히 제시하였다.

<표-2> 활동 영역

구 분		고등학교 1학년(10학년)
활 동	가 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자세, 호흡, 정확한 발음, 풍부한 발성으로 부르기 ◦ 듣고 부르기 ◦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여 보고 부르기 ◦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창의적으로 부르기 ◦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외어 부르기 ◦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이해하여 합창 지휘하기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창의적으로 부르기 ◦ 노래를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기 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자세, 주법, 좋은 음질로 연주하기 ◦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여 보고 연주하기 ◦ 악곡의 특징을 살려 창의적으로 연주하기 ◦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외어 연주하기 ◦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이해하여 합주 지휘하기 ◦ 여러 유형으로 반주하기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창의적으로 연주하기 ◦ 연주를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창 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을 즉흥적으로 표현하기 ◦ 여러 유형으로 변주하기 ◦ 다양한 형식의 곡을 만들어 적기 ◦ 악기와 목소리를 선택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 만든 곡을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감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의 성격과 구성 요소와의 관계를 이해하여 듣기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형식을 이해하여 듣기 ◦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에 어울리게 창의적으로 신체 표현하기 ◦ 다양한 악기 소리와 목소리의 음질과 그 조화를 이해하기 ◦ 다양한 연주 형태와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의 관계를 이해하여 듣기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기 ◦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기 ◦ 음악을 듣고 평가하기 ◦ 바른 감상 태도 가지기

제7차 교육과정의 활동 영역에서는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활동영역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음악교과는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좋은 음악을 감상하는 활동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네 영역은 모두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양한 악기와 각종 교구·설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4) 방법

(가) 교수·학습 지도 계획은 교육 과정의 목표 및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 학교의 요구와 실정, 학생의 발달 수준과 개인차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신축성 있게 수립한다. 교수·학습 방법은 학년별로 고려하고, 같은 학년에서도 목표와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한다.

(나) 내용 영역은 이해와 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 학습에서는 두 영역을 통합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다) 음악과의 모든 학습은 실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악곡과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또, 학생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급적 많이 제공하도록 한다.

(라) 이해 영역은 다양한 악곡과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 개념들을 습득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에 참여하여 문제 해결력과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높이도록 한다.

(마) 활동 영역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으로 구분되며, 수업에 따라 영역별로 운영하기도 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모든 학습 활동은 음악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사고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1) 가창 학습은 바른 자세·호흡, 자연스러운 발성을 지도하고,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학생의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학생이 혼자서 노래를 부르거나, 외어서 부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중·고등 학교에서는 합창과 중창에 중점을 둔다.

2) 기악 학습은 바른 자세와 바른 주법을 익히도록 하고,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학생들의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학생이 혼자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간단한 악곡을 외어서 연주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악기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선택하여 지도하도록 하며, 초등 학교 3, 4 학년은 소고, 장구, 큰북, 작은북 등의 리듬 악기와 리코더, 실로폰, 멜로디언 등의 가락 악기를 중심으로 지도하고, 초등 학교 5, 6 학년은 3, 4 학년에서 학습한 악기와 북, 단소, 피아노 등을 지도한다. 중·고등 학교에서는 초등 학교에서 학습한 악기를 연계하여 심화 학습이 되도록 하고, 합주에 중점을 둔다.

3) 창작 학습은 기초적인 창작 능력을 중심으로 개인별, 그룹별로 음악을 만들어 노래하고 연주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중·고등 학교에서는 학생이 독창적으로 음악을 만들어 적고 연주하게 한다.

4) 감상 학습은 다양한 음악을 들으며 악곡의 특징을 파악하고 음악적 이해를 높여 음악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즐겨 들을 수 있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 중·고등 학교에서는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음악을 감상하고, 분석하고, 토의하여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바) 교수·학습 내용에 따라 활동 중심, 개인별·그룹별 수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학습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도록 한다.

(사) 전통 음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실제적인 지도 방법을 개발하고, 전문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음악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아) 오디오, 비디오,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자) 음악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문화 행사에 참여하여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고 생활화하도록 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내용, 방법을 살펴보면 음악의 구성요소인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을 이해하고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며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한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이해와 활동영역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학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악기와 각종 교구·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현재 청소년들은 TV와 컴퓨터 등에 익숙한, 고도로 시각화된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이다. 그러므로 교사의 일방적인 수업은 더이상 학생들의 동기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교구·설비를 활용한 다감각 교육 방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평면화된 그림이나 사진보다는 직접 악기를 접함으로써 표현과 감상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 보다 적극적인 기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 체험할 수 없는 활동에 대해서는 컴퓨터 등의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학습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수준별·개별화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나. 교과서 제시 악기 비교

교구·설비기준의 주요종목인 악기가 교구·설비기준에서 현행 교육과정에 적합하게 제시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라 새롭게 편찬된 8종 음악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악기를 비교하여 보았다. 심화된 선택 과목인 음악과 생활의 교과서를 제외한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인 음악 과목의 8종 교과서에 제시된 악기들을 비교하였다.

교과서마다 내용 및 영역 분류 기준이 차이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기악 활동 중심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악기만을 발췌하여 비교하였다. 그러므로 각 교과서의 기악활동 중심 단원외의 타 단원에서 더 많은 종류의 악기들이 제시되어 있을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교학사는 ‘알아두기;창작’, ‘알아두기;기악’ 및 제시된 곡목 중 기악영역이 포함된 악곡을, 대한교과서는 ‘실기’를, 두산은 ‘기악’, ‘창작’을, 박영사는 ‘창작’, ‘연주여행’을, 세광음악출판사는 ‘기악(연주하는 즐거움)’, ‘창작(창조하는 즐거움)’ 및 제시된 곡목 중 기악영역이 포함된 악곡을, 태성은 ‘기악’, ‘창작’을, 천재교육은 ‘기악연주’, ‘창작음악세계’ 및 제시된 곡목 중 기악영역이 포함된 악곡을, 현대음악출판사는 ‘기악’, ‘창작’을 참고하였다.

다음 <표-3>은 교과서의 기악관련 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현악기를 비교한 것이다. 이 악기들 중 절반 이상의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기타(7), 가야금(6)이다. 교학사와 세광음악출판사의 교과서에 많은 현악기들이 제시되어 있었고 대한교과서, 박영사, 태성은 각각 1개의 현악기만을 제시하고 있었다. 기타는 태성을 제외한 7종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었고 향비파는 세광음악출판사의 교과서에만 제시되어 있었다.

<표-3> 교과서 제시 현악기

현 악 기		출 판 사								
		교학	대한	두산	박영	세광	태성	천재	현대	합계
서양악기	바이올린	√				√			√	3
	비올라	√				√				2
	첼로	√				√				2
	더블베이스	√				√				2
	하프	√				√				2
	기타	√	√	√	√	√		√	√	7
국악기	아쟁	√				√				2
	해금	√				√				2
	거문고	√				√				2
	가야금	√		√		√	√	√	√	6
	양금	√				√				2
	향비파					√				1
합 계		11	1	2	1	12	1	2	3	33

<표-4> 교과서 제시 건반악기

출판사		교	대	두	박	세	태	천	현	합
건반악기		학	한	산	영	광	성	재	대	계
서 양 악 기	멜로디언		√			√				2
	신디사이저	√				√				2
	아코디언	√					√			2
	오르간				√			√		2
	첼레스타	√								1
	피아노	√	√	√	√	√		√	√	7
합 계		4	2	1	2	3	1	2	1	16

교과서의 기악관련 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건반악기 중 절반 이상의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피아노(7)이다. 교학사와 세광음악출판사의 교과서에 많은 악기가 제시되어 있었다. 피아노는 태성을 제외한 7종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었으며 첼레스타는 교학사의 교과서에만 제시되어 있었다.

다음 <표-5>는 교과서의 기악관련 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관악기를 비교한 것이다. 이 악기들 중 절반 이상의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리코더(8), 단소(7), 소금(6), 알토리코더(4) 하모니카(4)이다. 교학사와 세광음악출판사의 교과서에서 눈에 띄게 많은 관악기들이 제시되어 있었고 박영사와 태성은 각각 2개, 3개의 관악기만이 제시되어 있었다. 리코더는 8종 교과서 모두 제시되어 있었고 단소는 박영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었다. 피콜로, 잉글리시호른, 피페는 세광음악출판사의 교과서에만 제시되어 있었고 색소폰, 훈은 교학사의 교과서에만 제시되어 있었다.

<표-5> 교과서 제시 관악기

출판사 관악기		교	대	두	박	세	태	천	현	합	
		학	한	산	영	광	성	재	대	계	
서양악기	피콜로					√				1	
	플루트	√				√				2	
	오보에	√				√				2	
	잉글리시호른	√								1	
	클라리넷	√				√				2	
	바순	√				√				2	
	호른	√				√				2	
	트럼펫	√				√				2	
	트롬본	√				√				2	
	튜바	√				√				2	
	섹소폰	√								1	
	리코더	√	√	√	√	√	√	√	√	8	
	소프라노리코더	√		√				√		3	
	알토리코더	√		√		√		√		4	
	피페					√				1	
	하모니카	√	√			√	√			4	
	국악기	대금	√	√			√				3
		소금	√	√		√	√		√	√	6
단소		√	√	√		√	√	√	√	7	
피리		√		√						2	
향피리		√	√			√				3	
세피리		√				√				2	
태평소						√			√	2	
생황		√				√				2	
훈		√								1	
합 계		22	6	5	2	20	3	5	4	67	

<표-6> 교과서 제시 타악기

출판사		교	대	두	박	세	태	천	현	합
타악기		학	한	산	영	광	성	재	대	계
서양악기	실로폰	√				√	√			3
	마림바					√				1
	심벌즈	√				√				2
	트라이앵글	√				√	√			3
	카우벨	√								1
	클라보스	√								1
	캐스터네즈	√					√			2
	귀로	√								1
	팀파니	√				√				2
	스네어드럼					√	√			2
	탐탐	√								1
	봉고	√								1
	콩가	√								1
	탬버린	√	√		√	√	√			5
	큰북	√			√		√			3
작은북	√	√		√		√			4	
국악기	편종	√				√				2
	특종	√								1
	편경	√				√				2
	특경	√								1
	방향	√								1
	징	√		√	√	√	√	√	√	7
	박	√				√				2
	축	√								1
	어	√								1
	부	√								1
	장고	√	√	√	√	√	√	√	√	8
	용고	√								1
	좌고	√								1
	북			√	√	√	√	√	√	6
	소리북	√							√	2
쟁과리	√		√	√	√	√	√	√	7	
합 계		29	3	4	7	14	11	4	5	77

교과서의 기악관련 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타악기 중 절반 이상의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장구(8), 징(7), 팽과리(7), 북(6), 탬버린(5), 작은북(4)이다. 교학사의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타악기는 29개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는 14개의 타악기가 제시된 세광음악출판사의 교과서이다. 장고는 8종 교과서에 모두 제시되어 있었고 징, 팽과리는 대한교과서를 제외한 7종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었다. 카우벨, 클라보스, 귀로, 탐탐, 봉고, 콩가, 특종, 특경, 방향, 축, 어, 용고, 좌고는 교학사의 교과서에만 제시되어 있었고 마림바는 세광음악출판사의 교과서에만 제시되어 있었다.

악기 종목의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오케스트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악기는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생들이 이 모든 악기를 다루지는 못하더라도 명칭이나 음색정도는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전국 시·도 기준 비교

1998년부터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좀 더 긴밀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하여 초·중등학교 교구·설비기준에 관한 권한이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대폭 완화, 위임되었다. 과거의 학교 교구·설비기준령은 대통령령으로서 학교의 입지조건에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었으나, 개정된 규정에서는 학교의 입지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건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다음의 <표-7>에서 <표-12>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국 광역시와 각도(道)의 음악과 교구·설비기준의 종목을 비교한 것이다. 기존에 음악과 교구·설비 기준을 비교한 자료가 없어서 이 연구에서 경기도와 충청북도

를 제외한 14개 시·도의 교구·설비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종목을 모두 비교하였으나 교구·설비 종목의 구체적인 규격은 생략하였다. 각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경기도는 각 지역 및 학교에서 그 실정에 맞게 또는 필요에 따라서 제정하도록 하였다고 하며, 충청북도는 제7차 교육과정에 적합하게 교구·설비기준을 현재 개정중에 있다고 하여 제외시켰다.

교구·설비기준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4-7호,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3-71호,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3-53호,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3-3호,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4-13호,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3-5호,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3-26호, 강원도교육청고시 98-32호, 충청남도교육청고시 제2002-6호, 전라북도교육청고시 제2003-3호,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01-30호, 경상북도교육청고시 제2003-3호, 경상남도교육청고시 제2003-3호, 제주도교육청고시 제2003-4호를 근거로 하였으며 ●는 필수종목을 ◎는 권장종목을 ○는 필수인지 권장인지 표기되지 않았으나 제시되어 있는 종목을 알리기 위한 기호로 사용하였다.

다음 <표-7>에서 교구·설비기준에 제시된 관악기를 보면 전국 시·도에서 공통필수로 제시한 악기는 하나도 없다. 최소한 절반 이상의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악기인 리코더, 단소, 소금, 알토 리코더, 하모니카는 필수종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필수·권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단소는 대전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제시하고 있다. 서울, 전북은 18개로 가장 많은 종류의 관악기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전은 3개로 가장 적은 종류의 관악기를 제시하고 있다.

<표-7> 시·도 기준 제시 관악기

관 악 기		지 역														
		서 울	인 천	부 산	대 전	광 주	대 구	울 산	강 원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서 양 악 기	피콜로					○	○				○	○				
	플루트	●	○			●	○	●	○	○	●	○		○	○	
	팬플루트										○					
	오보에	○	○			○	○	○	○		○	○		○		
	클라리넷	●	○			○	○	○	○	○	●	○		○	○	
	바순	○				○	○	○			○	○				
	호른	○	○			○	○	○	○	○	○	○		○	○	
	트럼펫	○	○			○	○	○	○	○	○	○		○	○	
	트롬본	○	○			○	○	○	○	○	○	○		○	○	
	튜바	○				○	○				○	○				
	섹소폰	○					○	○			○	○				
	리코더											●		●		
	소프라노 리코더	●	○	○		○		●	○						○	
	알토 리코더	●	○	○	●	○		○	○	○					○	
	테너 리코더	●	○	○	●	○		○	○	○					○	
	베이스 리코더	●	○	○	●	○		○	○	○					○	
	피페		○					○								
	하모니카					○		●								
	국 악 기	대금	○	○	○		●	○	○	●	●	●	○		○	●
		소금		○							○	○		○		○
단소		○	○	○		○	●	●	●	○	●	●	●	○	○	
향피리		○	○			●	○		○		○	○				
세피리		○							○		○					
태평소		○	○				○	○		○	○	○	○	○	○	

<표-8> 시·도 기준 제시 현악기

현 악 기		지 역													
		서 울	인 천	부 산	대 전	광 주	대 구	울 산	강 원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서	바이올린	●	○	○		○	○	●	○	○	●	○	○	○	○
	비올라	○	○			○	○	○	○	○	○	○	○	○	○
	첼로	○	○	○		○	○	○	○	○	○	○	○	○	○
	더블베이스	○					○		○						
양	하프					○									
	오토하프	○						○		○				○	
악	기타	○		○	●	○	○	●	○	○	○	○	○	○	○
	클래식기타		○												
기	포크기타		○			○									
	일렉기타		○	○	○		○	●				○			
	베이스기타		○	○	○		○	●				○			
	아쟁	○	○			○	○	○		○	○	○	○		○
국	해금	○	○	○		●	○	○	●	○	○	○	○		○
	거문고	○	○	○		○	○	○	●	○	○	○	○		●
기	가야금	●	○	○	○	○	○	○	●	●	●	○	●	○	●
	양금	○	○								○				

교구·설비기준에 제시된 현악기를 보면 전국 시·도에서 공통필수로 제시한 악기는 하나도 없다. 절반 이상의 교과서에서 제시되어 있는 악기는 기타와 가야금이며, 이 악기들은 시·도 기준에서도 인천의 기타를 제외하고는 필수와 권장종목 형태로 모든 시·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모두 필수종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수·권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가야금은 14개의 시·도에서 모두 제시하고 있다. 바이올린, 첼로는 대전을 제외한, 기타는 인천을 제외한 13개의 시·도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하프는 광주에서만, 클래식기타는 인천에서만 제시하고 있다. 인천은 12개로 가장 많은 종류의 현악기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전은 4개로 가장 적은 종류의 현악기를 제시하고 있다.

<표-9 시·도 기준 제시 건반악기>

지 역		서 울	인 천	부 산	대 전	광 주	대 구	울 산	강 원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울	천	산	전	주	구	산	원	남	북	남	북	남	주
서 양 악 기	아코디언	○			○	○	○		○						○
	오르간					●									
	전자오르간	●							●						○
	컴퓨터용 건반		●												
	키보드			●	●	●	●	●		●	●	●	●		●
	피아노	●		●	●	●	●	●	●	●		●	●	●	●
	그랜드피아노		○		○										
	업라이트피아노		●								●				
	디지털피아노		○		●		○								

교구·설비기준에 제시된 건반악기를 보면 전국 시·도에서 공통필수로 제시한 악기는 하나도 없다. 절반 이상의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악기는 피아노이며,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피아노는 전국 교구·설비 기준에 공통적으로 필수종목에 포함되어 있다. 가장 적은 종류의 관·현·타악기를 제시하고 있는 대전은 5개로 가장 많은 종류의 건반악기를 제시하고 있으며 부산,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는 2개의 건반악기만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표-10>에서 교구·설비기준에 제시된 타악기를 보면 전국 시·도에서 공통필수로 제시한 악기는 하나도 없다. 절반이상의 교과서에 제시된 타악기는 장구, 징, 팽과리, 북(국악기), 탬버린, 작은북이며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장구, 징, 팽과리, 북(국악기)은 필수종목과 권장종목 중 어느 한쪽에는 포함되어 있다. 필수·권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징, 소고는 대전을 제외한, 사물북은 경북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제시하고 있다. 귀로, 핸드벨은 인천에서만, 팀파니는 서울에서만, 사물징은 대전에서만, 쇠는 울산에서만 제시하고 있다. 인천은 20개로 가장 많은 종류의 타악기

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전은 7개로 가장 적은 종류의 타악기를 제시하고 있다.

<표-10> 시·도 기준 제시 타악기

타 악 기		지 역													
		서 울	인 천	부 산	대 전	광 주	대 구	울 산	강 원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서 양 악 기	실로폰		○			○							●		
	마림바		○			○	●	●			○	○			
	비브라폰				○	○	●	○			○	○			
	심벌즈	●	○	●		●	●		●	●	○		○	○	●
	트라이앵글	●	○	●		○		●	●				●	○	
	우드블록		○				●					○			
	캐스터네츠	●	○	●		○		●	●				●	○	
	마라카스		○				●					○			
	귀로		○												
	팀파니	○													
	탬버린	●	○	●		○	●	●	●		●	○	●	○	
	큰북	●	●	●		●	●	●	●	●	○		○	○	●
	작은북	●	○	●		●	●	●	●	●	○		●	○	●
	드럼세트		○	○	○		○	●				○			
	핸드벨		○												
	국 악 기	징	●	○	●		●	●	●	●	●	●	●	●	○
사물징					●										
박		○	○			●	○	○	○	○	●	○		○	○
장고			●	●		●	●	●		○		●			○
반주장고		●			●		●		●			●	●	○	
사물장고					●						●				
설장고		●							●						
소리북		●	○	●		●			●		●	○	●		
사물북		●	●	●	●	●	●	●	●	●	●	●		○	●
소고		○	○	●		○	●	○	○	●	●	○	●	○	●
쇠								●							
뽕과리		●	○	●			●		●	●	●	●	●	○	●
사물뽕과리				●	●										

<표-11 전자매체 교구·설비>

교 구 · 설 비		지 역													
		서 울	인 천	부 산	대 전	광 주	대 구	울 산	강 원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전 자 매 체	감상용CD 및 테이프		●												
	냉·난방 시설	◎	●		●		◎		◎						◎
	녹음기				●	●		●					●		
	DVD	●	●	●			○	●		●	●	◎	●	●	●
	마이크 시설			○											
	맥시비전							◎							
	미디소프트웨어(노테이션)						○					●			
	미디소프트웨어(시퀀싱)						◎					●			
	미디소프트웨어(수업용)						○					●			
	미디인터페이스·케이블						○					●			
	VCR	●		○			○	●		●	○			●	●
	VTR	●		●				●		●					
	비디오시스템		●								●		●		
	빔프로젝터				●		○								
	샘플러						○					●			
	스크린	●					○	●		●	○				●
	스크린(OHP)						◎				○				
	스피커	●						●		●					●
	실물화상기	●		○			◎	●		●	○				●
	CDP	●		●		●	○		●		●	◎	●	●	
	LCD프로젝터	●	◎					●		◎					●
	연주 비디오 테이프		◎												
	오디오시스템	●	●	●	●	●	○	●	●	●	●	●	●	●	●
	음악관련 동영상CD		◎												
	음원모듈						○					●			
	전동스크린		◎												
	진공청소기				◎					◎					
	컴퓨터	●	◎	●				●		●	○				●

교 구 · 설 비		지 역													
		서 울	인 천	부 산	대 전	광 주	대 구	울 산	강 원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전 자 매 체	컴퓨터(교원용)				●		○								
	컴퓨터(학생용)				●		○								
	컴퓨터용 프린터	◎			◎			◎		◎	○				◎
	컴퓨터전용 모니터	●						●		●					●
	투시환등기(OHP)	●	◎				◎	●		●	○				●
	튜너		●				○	●				●			
	TV	●								●	○			●	
	TV수상기	●						●		●					●
	프로젝션TV	●	●	●	●		◎	●		●					●
	PC 뮤직멀티시스템					◎					●				
	학습용 CD자료 (휴대용) 앰프		●		●		◎	●				◎			

전자매체 종목 중 오디오시스템은 대구를 제외한 전국 시·도에서 필수 종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필수·권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디오시스템은 14개의 시·도에서 모두 제시하고 있으며 감상용CD 및 테이프, 음악 관련 동영상CD, 전동스크린, 학습용 CD자료는 인천에서만, 마이크 시설은 부산에서만, 맥시비전은 강원에서만 제시하고 있다. 대구는 20개로 가장 많은 종류의 전자매체 교구·설비를 제시하고 있으며 강원은 3개로 가장 적게 제시하고 있다.

다음 <표-12>는 일반 교구·설비를 비교한 것이다. 필수·권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선칠판은 14개 시·도에서 모두 제시하고 있으며 메트로놈은 대전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제시하고 있다. 방음시설, 의자, 지휘봉은 인천에서만, 악보정리함은 대전에서만, 장구받침대(입식, 좌식)는 전남에서만, 지휘대(교사용)는 대구에서만, 합창대는 대전에서만 제시하고 있다. 울산은 18개로 가장 많은 종류의 일반 교구·설비를 제시하고 있으며 강원, 경북은 3개로 가장 적게 제시하고 있다.

<표-12 일반 교구·설비>

교 구 · 설 비		지 역													
		서 울	인 천	부 산	대 진	광 주	대 구	울 산	강 원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일 반 교 구 · 설 비	결상(교사용)	●					●		●	○					●
	결상(학생용)	●	●				○	●		●	○				●
	계시판	●	◎				○	●		●	○				
	교탁	●	◎				○	●		●	○				
	교구작품 보관대·장	●						●		●					●
	기자재 보관함	●						●		●					
	메트로놈	●	●	●		●	○	●	●	●	●	●	●	●	●
	방음시설		●												
	보면대		●	●	●										
	보면대(지휘자용)					●		●			●	●			
	보면대(학생용)					●	◎	◎			●	●			
	실험·실습·실기 대	●						●		●	○				●
	악기보관실(합)		◎		●	●	○	●		◎		●			●
	악보정리함				●										
	암막 커튼		◎		●										
	오디오보관함							●				●			
	오선칠관	●	●	●	●	●	○	●	●	●	●	●	●	●	●
	음악실	●			●	◎	○	●		●		●		●	●
	음악준비실				●		○								
	의자		●												
	장구받침대(입식)											●			
	장구받침대(좌식)											●			
	정간보칠관	●	●	◎	◎		○	●	●	●		●	●	●	●
	지휘대(교사용)						○								
	지휘봉		●												
	징걸이						●					●			
	책상(교사용)	●						●		●	○				●
	책상(학생용)		●				○				○				
	책상(컴퓨터용)		◎		◎										
	청소용구 보관함	●						●		●					
	칠관	●						●		●	○				◎
	캐비닛			○						●					●
	합창대				●										

교구·설비 기준을 각 시·도 교육청에 위임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교구·설비조차 교구·설비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지역도 있고 필수·권장의 기준 또한 뚜렷한 근거없이 제각각이다.

교육부는 교구·설비 기준을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제정하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그 권한을 위임한다 하더라도 교구·설비 종목에 관한 기본적인 틀은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8종 교과서 중 최소한 절반 이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악기인 리코더, 단소, 소금, 엘토리코더, 하모니카, 기타, 가야금, 피아노, 장구, 징, 팽과리, 북, 탬버린, 작은북 정도는 구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 제주도 기준

<표-13> 교구 기준

영역	교구종목	소요기준	비고	영역	교구종목	소요기준	비고	
특별실	음악실	교당1	필수	표 현	트롬본	교당1	권장	
공 통	오선칠판	실당1	필수		호른	교당1	권장	
	정간보칠판	실당1	필수		팽과리	교당1	필수	
	메트로놈	실당1	필수		징	교당1	필수	
	악기보관실	교당1	필수		북	교당1	필수	
	피아노	실당1	필수		장구	교당35	권장	
표 현	키보드	실당1	필수		태평소	교당1	권장	
	리코더	교당10	권장		대금	교당1	필수	
	큰북	교당1	필수		거문고	교당1	필수	
	작은북	교당2	필수		가야금	교당1	필수	
	심벌즈	교당1	필수		해금	교당1	권장	
	바이올린	교당1	권장		아쟁	교당1	권장	
	비올라	교당1	권장		소금	교당1	권장	
	첼로	교당1	권장		소고	교당1	필수	
	기타	교당35	권장		박	교당1	권장	
	플루트	교당1	권장		단소	교당35	권장	
	클라리넷	교당1	권장		감 상	오디오시스템	실당1	필수
	트럼펫	교당1	권장					

제주도의 교구 기준을 살펴보면 8종 교과서 중 4종이상의 교과서(기악관련 단원)에 제시되고 있는 악기인 피아노, 리코더, 소금, 기타, 가야금, 장구, 징, 팽과리, 북, 작은북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소, 하모니카, 탬버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교구·설비 기준에서 오보에,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탬버린, 소리북은 대부분의 시·도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제주도가 유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교구종목은 없었다.

<표-14> 설비 기준

설비종목	비고	설비종목	비고
철판	권장	VCR/DVD	필수
스피커	필수	실물화상기	필수
프로젝션TV	필수 (택1)	투시환등기(OHP)	(택1)
컴퓨터전용 모니터		컴퓨터	필수
TV수상기		컴퓨터용 프린터	권장
LCD프로젝터(스크린포함)		냉·난방 시설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용 책상·의자 • 학생용 의자 • 실험·실습·실기 대 • 캐비닛 • 교구·작품·공구 보관대 	필수	기타 학습에 필요한 설비 (실정에 맞는 설비)	필수

제주도의 설비 기준을 살펴보면 매우 기본적인 설비종목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타 학습에 필요한 설비를 각 학교에서 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방음시설 등의 꼭 필요한 설비종목은 필수 설비 종목에 포함시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교구·설비 기준에서 CDP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제주도가 유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설비종목은 없었다.

3. 음악과 교구·설비 실태 조사

가. 설문조사

(1)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의 작성은 음악교육에 관한 문헌과 함께 제주도 음악과 교구·설비 기준 등 관련자료를 참조하였고 전체 설문 항목은 18문항이며 그 내용은 <표-15>와 같다.

<표-15> 설문지 구성

측정변수	구성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음악실·감상실 보유현황 및 필요성	음악실 보유현황 및 필요성여부	1-1, 1-2	2
	음악감상실 보유현황 및 필요성여부	2-1, 2-2	2
현행 교구·설비 기준 인지여부	현행 교구·설비 기준 지각유무	3-1	1
	현실성에 대한 견해	3-2	1
교구·설비 실태 및 건의 경험	교구·설비 실태의 양호정도	4-1	1
	낙후 이유	4-2	1
	부족한 교구 건의 경험	5-1	1
	경험이 없는 이유	5-2	1
	설비 종목 구비 현황	6	1
	교구 종목 구비 현황	7	1
수업시 어려운 점	수업시 어려운 점	8	1
실기 연수 경험	실기 연수 경험	9-1	1
	경험이 없는 이유	9-2	1
중점 지도 분야	수업시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분야	10	1
특별운영 부서	특별 운영하는 부서	11-1	1
	일반 수업시간에서의 악기활용도	11-2	1

(2) 조사대상

제주도내의 29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학교의 성격은 <표-16>과 같다.

<표-16> 조사대상 학교 성격

구 분	학 교 수	비 율
인문계	17	58.6
실업계	12	41.4
사립	9	31.0
국·공립	20	69.0
남학교	6	20.7
여학교	7	24.1
공학	16	55.2

(3) 실시기간

설문지 발송을 알리기 위해 2004년 9월 1일(수)부터 6일(월)까지 각 학교 음악교사에게 전화하였고, 9월 7일(화)에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일괄적으로 발송하였으며, 9월13일(월)부터 18일(토)사이 에 응답한 설문지 20개가 반송되어 왔다. 9월 20일(월)부터 22일(수)사이 에 나머지 설문지를 회수하기 위해 9개의 학교를 직접 방문하였으며 9월 22일(수)에 설문지를 100% 회수하였다.

나. 조사결과

<표-17> 음악실

질문내용	응답내용	빈도	비율
음악실 보유 현황은?	유	26	89.7
	무	1	3.4
	타교실과 병행	2	6.9
음악실의 필요성 여부는?	필요	29	100
	불필요	0	0
	상관없음	0	0

음악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 학교 중 89.7%로 대부분의 학교가 음악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6.9%의 학교는 타교실과 병행하고 있다. 모든 음악교사들은 음악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18> 음악감상실

질문내용	응답내용	빈도	비율
음악감상실 보유 현황은?	유	8	27.6
	무	6	20.7
	음악실 또는 타교실과 병행	15	51.7
음악감상실의 필요성 여부는?	필요	28	96.6
	불필요	0	0
	상관없음	1	3.4

음악감상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 학교 중 27.6%에 불과하고 51.7%의 학교에서는 음악실 또는 타교실과 병행하고 있어 음악감상실이 현저하게 부족함을 알 수 있다. 96.6%의 음악교사들은 음악감상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19> 교구·설비 기준 지각유무

질문내용	응답내용	빈도	비율
현행 교구·설비 기준을 알고 있는가?	잘 안다.	15	51.7
	조금 안다.	10	34.5
	잘 모른다.	4	13.8
	전혀 모른다.	0	0
알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어떠한가?	현실에 적합하다.	3	12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22	88
	실제 수업 교구·설비와는 관계가 없다.	0	0
	생각해 본 적이 없다.	0	0

현행 교구·설비기준을 잘 알고 있는 교사는 51.7%, 조금 알고 있는 교사는 34.5%, 잘 모르고 있는 교사는 13.8%로 나타났고 알고 있는 교사들 중 88%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표-20> 교구·설비 상태

질문내용	응답내용	빈도	비율
음악과 교구·설비 상태에 대해서는?	타 교과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다.	4	13.8
	타 교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9	31.0
	낙후되어 있다.	16	55.2
	모르겠다.	0	0
낙후되어 있다면 그 이유는?	학교 관리층의 인식 부족	10	62.5
	예산 부족	4	25.0
	구비되어도 활용되지 않을 것 같아서	2	12.5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0	0

‘타 교과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응답이 13.8%, ‘타 교과와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응답이 31.0%, ‘낙후되어 있다’라는 응답이 55.2%이다. 낙후되어 있다고 응답한 대부분의 교사들이 그 이유를 학교 관리층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표-21> 부족한 교구 건의 경험

질문내용	응답내용	빈도	비율
부족한 교구에 대하여 학교에 건의한 경험은?	필요시 마다 여러 번 해 보았다.	22	75.9
	한 두 번 정도 해 보았다.	4	13.8
	한 적이 없다.	3	10.3
	건의가 필요하지 않다.	0	0
한 적이 없거나 건의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건의가 관철되지 않을 것 같아서	2	66.7
	건의하는 것이 귀찮아서	0	0
	제도상 건의가 불가능하므로	0	0
	현 교구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므로	1	33.3

음악과 교구에 대한 음악교사들의 건의 여부를 보면 ‘필요시 마다 여러 번 해 보았다’가 75.9%로 가장 높았으며 ‘한 두 번 정도 해 보았다’에 13.8%, ‘한 적이 없다’에 10.3% 응답하였다.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건의가 관철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다. 과거에 비해 많은 교사들이 음악과 교구·설비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 적이 없거나 건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소극적인 자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 <표-22>는 설비종목 구비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3, 22, 24, 27번의 4개 학교는 설비기준에 제시된 필수 설비종목을 갖추고 있으나 24개의 학교는 필수 설비종목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으며 1개의 학교는 설비종목 중 어느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다. 칠판은 3개의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26개 학교에서 갖추고 있었으며, LCD프로젝터를 갖추고 있는 학교는 2개 학교에 불과했다.

<표-22> 설비종목 구비 현황

중 목 학교	칠판	프로 젝션 TV	스피 커	컴퓨터 전용 모니터	투 시 등 환 기	컴퓨터 프린 터	실물 화상 기	T V 수 상 기	VCR /D V D	컴 퓨 터	LCD 프로 젝터	냉· 난방 시설
1	√		√	√				√	√	√		
2	√	√	√	√		√		√	√	√		
3	√	√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8												
9	√	√	√						√	√	√	
10	√	√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14	√	√				√			√	√		√
15	√	√	√	√		√		√	√	√		√
16	√	√	√					√		√		
17				√				√		√		
18	√	√	√	√		√		√	√	√		√
19	√		√					√		√		
20	√	√						√	√			
21	√	√	√	√	√		√	√		√		
22	√	√	√	√	√	√	√	√	√	√		√
23	√		√					√	√			√
24	√	√	√	√		√	√	√	√	√		
25	√	√	√	√		√		√	√	√		√
26	√	√	√					√	√			√
27	√		√		√		√	√	√	√	√	√
28	√	√	√			√				√		
29		√				√				√		

<표-23> 일반교구 구비 현황

종목 학교	5선철관	정간보철관	메트로놈	악기보관실(합)	오디오시스템
1					1
2	1		1	1	1
3	1		1	1	1
4	1		1	50	1
5	1		1		1
6	1				1
7	1				
8					
9	1		1	1	1
10	1		1	1	1
11	1			1	1
12	1	1		1	1
13	1				1
14	1				
15	1		1	1	1
16	1			10	1
17					1
18	3		1	8	2
19	1		1	1	
20	1		1	1	1
21	2		1	16	1
22	1		20	2	1
23	1		1	2	2
24	1		1	1	1
25	1		2		1
26	1		1	1	1
27	1		1	1	
28	1		2		1
29					

위의 다섯가지 교구는 교구·설비기준에 필수교구로 기재되어 있다. 이 다섯가지 교구를 모두 갖추고 있는 학교는 한 군데도 없으며 다섯가지 교구 중 하나도 없는 학교도 두 군데 있고 정간보철판이 있는 학교는 1개의 학교에 불과하다. 악기보관실(함)을 50개 구비하고 있는 4번 학교는 다양한 종류의 서양악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관악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였다. 악기보관실(함)을 16개 구비하고 있는 21번 학교는 다수의 국악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악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였다. 악기보관실(함)을 10개 구비하고 있는 16번 학교는 가야금을 25개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악부를 운영하고 있었다. 메트로놈을 20개 구비하고 있는 22번 학교는 여러 종류의 서양악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국악기도 다량 보유하고 있었으며 관악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였다.

다음 <표-24>는 서양악기 구비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바이올린을 구비하고 있는 학교는 한 군데도 없고 첼로를 구비하고 있는 학교는 단 한 군데이며 당연히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필수 서양악기를 소요기준에 맞게 제대로 갖춘 학교는 한 군데도 없다. 관악기를 1개라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1, 3, 4, 10, 11, 12, 15, 20, 22, 23, 24, 26번의 학교로 모두 관악부가 있었다. 피아노 1대가 구비하고 있는 서양악기의 전부인 7번, 13번은 각각 성악부, 그룹사운드가 있었다. 보유하고 있는 현악기가 첼로 3개가 전부인 28번 학교는 의외로 현악부가 있었다. 그러나 많은 종류 또는 많은 수의 악기를 구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음악부서가 있음을 볼 때 음악부서와 악기보유수와의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4> 서양악기 구비 현황

종목 학교	플루트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리코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기타	심벌즈	큰북	작은북	피아노	키보드
1	2	6	2	4	4									1	
2						30						1		2	1
3	5	7	7	12	11	15				1	2	2	5	1	17
4	6	12	5	15	12	3		1		2	4	1	5	2	1
5						30								1	
6														2	
7														1	
8														1	
9														3	
10	6	7	2	7	6							1		1	1
11			1	1	1						1	1		1	
12	6	6	5	6	6						3	2	1	2	
13														1	1
14														1	
15	1	1	3	6	5						1	1		1	
16														2	1
17														2	
18						30								20	2
19														1	1
20	3	11	3	8	7						1	1	1	2	
21														2	1
22	4	6	4	7	6			1		2	1	2	3	5	2
23	2	2	2	2	2						2	2	2	2	2
24	3	14		11	8			1			1	1	1	1	1
25						2				20				7	5
26	7	9	4	9	9	40					2	3	5	1	1
27										46				2	
28						40			3					3	1
29														1	

<표-25> 국악기 구비 현황

종목 학교	대금	소금	단소	태평소	아쟁	해금	거문고	가야금	징	박	장구	북	소고	쟁과리
1														
2			30						3		30	20	10	15
3			20	2					4		7	6		5
4			5						1		3	1		1
5			30	1					2		20	8	4	4
6				2				30	2		4	4		3
7									2		4	4		
8														
9			40											
10								35	1		35	35		1
11														
12									3		4	3		5
13			30						2		14	24		
14											2			
15				1					1		1		1	1
16								25	5		10	5		10
17	6	5	3	5				1	2		10	3	2	5
18	20	2	30	3	6	12	12	50	4	1	8	8		10
19	6		30					2	2		10	4		4
20									4		5	10	4	8
21			20						5		20	5	20	20
22	2		30	1					3		8	2	8	4
23				2					2		2	2		2
24	1		1				1	1	2		2	4	1	
25			2						5		20	5		5
26			10	2					1		20	1		2
27	1		10						1		16	4		3
28														
29														

필수 국악기인 쟁과리, 징, 북, 대금, 거문고, 가야금, 소고를 모두 갖춘 학교는 한 곳도 없으며 5개의 학교는 국악기가 하나도 없다. 2, 6, 16, 18, 19, 21번 학교는 국악부가 있는 학교이고 이 학교들은 상당수의 국악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18번 학교는 특히 많은 종류의 국악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대금, 소금, 단소, 태평소, 가야금, 징, 장구, 북, 소고, 쟁과리 등 여러 종류의 국악기를 구비하고 있는 17번 학교에는 취타대가 있

었으며, 단소 40개가 보유하고 있는 악기의 전부인 9번 학교에는 의외로 사물놀이부가 있었다.

<표-26> 수업시 어려운 점

질문내용	응답내용	빈도	비율
수업을 하는데 어려운 점은?	교구·설비의 부족	10	34.5
	학교측의 방관적인 태도	2	6.9
	학생들의 낮은 호응도	10	34.5
	애로점이 없다.	6	20.7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1	3.4

음악교사들이 수업을 하는데 어려운 점은 ‘교구·설비의 부족’이 34.5%, ‘학교측의 방관적인 태도’가 6.9%, ‘학생들의 낮은 호응도’가 34.5%, ‘애로점이 없다’가 20.7%로 나타났다. 많은 교사들이 교구·설비의 부족과 학생들의 낮은 호응도로 인해 수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표-27> 실기연수 경험

질문내용	응답내용	빈도	비율
실기능력 신장 위한 연수 경험은?	있다.	22	75.9
	없다.	7	24.1
없다면 그 이유는?	기회가 없어서	4	57.1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2	28.6
	시간이 없어서	1	14.3
	귀찮아서	0	0
	기타	0	0

실기능력의 신장을 위해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는 75.9%로 상당수의 교사들이 연수를 받았으며 24.1%는 연수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연수를 받은 경험이 없는 이유로는 ‘기회가 없어서’ 57.1%, ‘필

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28.6%, '시간이 없어서' 14.3%를 들고 있다. 실기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 22명중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음악 부서가 있는 교사는 18명이었고 없는 교사는 4명이었다. 그러나 실기 연수를 받은 경험이 없는 교사 7명 중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음악 부서가 없는 교사는 2명에 불과하였다. 실기 연수와 음악 부서의 유무와는 크게 상관 없음을 알 수 있었고 실기 연수 경험이 있고 지도 능력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교구·설비의 미비로 효과를 거두기 힘든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표-28> 중점지도 분야

질문내용	응답내용	빈도	비율
수업시 가장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분야는?	가창	9	31.0
	감상	14	48.3
	창작	0	0
	기악	4	13.8
	음악이론	2	6.9

위 결과를 보면 가창 31.0%, 감상 48.3%, 기악 13.8%, 음악이론 6.9%로 감상에 중점을 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과거 가창 중심의 수업으로부터 어느정도는 벗어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감상영역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것에 비해 음악감상실 보유수가 현저하게 적음을 볼 때 교구·설비의 개선정도가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에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29>는 특별운영 음악부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음악 부서로는 관악부 41.4%, 현악부 3.4%, 국악부 20.7%이고 13.8%를 차지하는 기타부서로는 성악부, 사물놀이부, 그룹사운드, 취타대가 있었다. 이 악기들을 수업시간에 활용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본 결과 '모두 활용한다' 8.7%, '대부분 활용한다' 21.7%, '일부분 활용한다' 34.8%,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34.8%로 활용하는 학교도 있으나 활용하

지 않는 학교도 상당수임을 알 수 있다.

<표-29> 특별운영 음악부서

질문내용	응답내용	빈도	비율
상설적으로 특별 운영하는 음악 부서는?	관악부	12	41.4
	현악부	1	3.4
	국악부	6	20.7
	없음	6	20.7
	기타	4	13.8
있다면 그 악기를 수업시간에도 활용하는가?	모두 활용한다.	2	8.7
	대부분 활용한다.	5	21.7
	일부분 활용한다.	8	34.8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8	34.8
	활용하지 않는다.	0	0

다. 정리

독립된 음악실을 갖춘 학교는 89.7%로 양호하게 보이나 음악실은 음악 수업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학교는 음악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감상영역에 많은 비중을 두어 수업하고 있는 실정에 비해 독립된 음악감상실을 갖춘 학교는 27.6%로 매우 저조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음악실과 음악감상실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행 교구·설비 기준은 51.7%의 교사가 잘 알고 있었고 34.5%의 교사는 조금 알고 있었다. 교구·설비 기준을 알고 있는 교사 중 12%만이 현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88%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3.8%의 교사는 교구·설비기준을 잘 모르고 있었으며 이는 법령의 무관심 때문으로 보인다.

음악과 교구·설비 상태에 대해서는 55.2%가 ‘낙후되어 있다’, 13.8%는 ‘타 교과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다’, 31.0%는 ‘타 교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로 나타났다. 낙후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62.5%가 ‘학교 관리층의 인식 부족’이라고 답했으며 25.0%는 ‘예산 부족’, 12.5%는 ‘교구설비가 구비되어도 활용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부족한 교구에 대해 필요시마다 여러 번 건의 해 본 교사는 75.9%로 많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 두 번 정도 건의를 해 본 교사는 13.8%, 한 적이 없는 교사도 10.3%나 되었으며 그 이유로 66.7%가 ‘건의가 관철되지 않을 것 같아서’, 33.3%는 ‘현 교구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라고 답했다.

설비종목의 구비 현황을 알아본 결과 13개의 학교는 설비기준에 제시된 필수종목을 갖추고 있었고 15개의 학교는 필수 설비종목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1개의 학교는 한 종목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악기를 포함한 교구종목의 구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필수교구로 제시된 종목을 모두 갖추고 있는 학교는 한 군데도 없었다.

75.9%가 실기능력의 신장을 위한 연수 경험이 있었으며 연수 경험이 없는 24.1% 중 57.1%는 ‘기회가 없어서’, 28.6%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14.3%는 ‘시간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수업시 가장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분야는 감상 48.3%, 가창 31.0%, 기악 13.8%, 음악이론 6.9%의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과거 가창 중심의 수업으로부터 점차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개의 학교가 상설적으로 특별운영하는 음악부서가 있었다. 그 중 관악부가 41.4%로 가장 많았으며 국악부가 20.7%, 현악부가 3.4%로 나타났다. 13.8%를 차지하는 기타부서로는 성악부, 사물놀이부, 그룹사운드, 취타대가 있었다.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악기들을 수업시간에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8.7%만이 모두 활용한다고 답했다.

4.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고등학교 음악과 교구·설비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를 위해 관련 논문을 살펴본 결과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교구·설비 실태 조사에 앞서 고등학교 음악교육의 의의를 생각해 보았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등학교 음악과 목표와 내용 및 방법을 알아보았다. 고등학교 음악과 교구·설비와 관련하여 8종 교과서의 기악관련 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악기종목을 알아보았으며, 전국 14개 시·도 교구·설비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고등학교 음악과 교구·설비 종목을 모두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교구·설비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았다.

이러한 기본 연구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교구·설비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29개 고등학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음악실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음악감상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가 음악실과 마찬가지로 음악감상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구·설비 기준에 대해서는 많은 교사들이 알고 있었으나 그 중 대부분의 교사들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교구·설비 실태에 대해서는 많은 교사들이 낙후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그 중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교 관리층의 인식 부족때문이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부족한 교구에 대하여 학교에 여러 번 건의해 본 적이 있었고 건의를 해 본 적이 없는 교사들은 건의가 관철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교구·설비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대다수의 학교들이 최소한의 교구·설비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이는 효과적인 수업결과를 가져오는데 방해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실기 능력의 신장을 위한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나 기회가 없어서 받지 못

했다고 응답한 교사도 있었다. 수업시간에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분야는 감상영역이 가장 많았으나 음악감상실을 갖춘 학교는 극히 일부분이었다. 4개 학교를 제외한 25개 학교가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음악 부서가 있었으나 그 악기를 활용하지 않는 학교가 많았다.

실태조사 결과 제주도내 고등학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부족한 교구의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갖추어진 교구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에서는 교사들의 요구를 적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둘째, 앞으로의 교육은 주입식과 암기식의 수동적인 교육으로부터 탈피하여 학생 중심의 적극적인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즉, 학생들 입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음악 수업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구·설비의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많은 교사들은 교구·설비의 부족과 학생들의 낮은 호응도로 인해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교구·설비의 부족과 학생들의 낮은 호응도는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둘 다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지만 전자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사 스스로 실기 지도를 위한 연수를 받아 유능한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실기 지도에 있어 유능한 교사란 모든 악기를 다루고 연주할 수 있는 교사가 아니라 음악학습에서 학생들에게 프레이즈, 아티큘레이션 등과 같은 음악적 기능과 악곡의 느낌을 정확하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교사이다. 관련기관에서는 이러한 유능한 교사양성을 위해 다양하고 유익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고등학교 음악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교구·설비를 갖추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정책의 개선과 재정적 지원의 뒷받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흥미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사들은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 결과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밝혀졌으나 실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세세히 다루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시사점들을 교육 현장에서 구체화하여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교육부(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김종환(2004). 『음악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송진범(2004). 『음악교육학』. 서울: 학문사.
- 이홍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_____ (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임미경, 장기범, 함희주(2002).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인천: 예종.
- 호퍼, 찰스 R. (1998). 『음악교육론』, 안미자(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레온하드, 찰스, 로버트 하우스(1997).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 안미자(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Mark, Michael L. (1992). 『현대의 음악교육』, 이홍수, 임미경, 방금주, 김미숙, 장기범(역).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2. 학위논문

- 김종필(1996). 제 6차 교육과정에 의한 현 중학교 음악 교재교구 보유현황 및 활용에 관한 분석 연구-서울지역 중학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미선(2002). 중학생의 음악적 성향 및 환경조사 분석-서산지역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강식(1999). 도시와 농촌 학생들의 음악교육 환경에 대한 비교연구-진주시와 함양군의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기용(1999). 중학교 음악과 시설 및 교구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진실(1992). 음악과 시설 및 교구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내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지용호(1997). 중학교 음악수업에 있어 기악학습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강원도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허미선(2000). 중등학교 음악실 학습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 교과서

- 고춘선, 홍종건(2004). 고등학교 음악.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김성수, 이성재, 김영목(2004). 고등학교 음악. 서울: 대한교과서(주).
- 백병동, 최현, 문경해, 홍기순, 김은하(2004). 고등학교 음악. 서울: (주)천재교육.
- 서한범, 주대창, 홍수진, 신주연(2002). 고등학교 음악. 서울: 도서출판 태성.
- 윤경미, 문진(2002). 고등학교 음악.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 이강을, 주광식, 김금수, 황선(2002). 고등학교 음악. 서울: 도서출판 박영사.
- 이홍수, 황병훈, 이성훈, 김향정(2004). 고등학교 음악. 서울: (주)두산.
- 정영택, 허화병(2004). 고등학교 음악. 서울: (주)교학사.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원 논문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각 학교의 음악 교구·설비 상태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도움을 주시면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학교이름을 거명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고선왕 올림

1-1. 음악실 보유현황은?

- ① 유 ② 무 ③ 타교실과 병행

1-2. 음악실의 필요성 여부는?

- ① 필요 ② 불필요 ③ 상관없음

2-1. 음악감상실 보유현황은?

- ① 유 ② 무 ③ 음악실 또는 타교실과 병행

2-2. 음악감상실의 필요성 여부는?

- ① 필요 ② 불필요 ③ 상관없음

3-1. 현행 교구·설비 기준을 알고 있는가?

- ① 잘 안다. ② 조금 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3-2. 알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어떠한가?

- ① 현실에 적합하다.
②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③ 실제 수업 교구·설비와는 관계가 없다.
④ 생각해 본 적이 없다.

4-1. 음악과 교구·설비 상태에 대해서는?

- ① 타 교과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다.
② 타 교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③ 낙후되어 있다.
④ 모르겠다.

8. 수업을 하는데 어려운 점은?

- ① 교구·설비의 부족
- ② 학교측의 방관적인 태도
- ③ 학생들의 낮은 호응도
- ④ 애로점이 없다.
-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9-1. 실기능력의 신장을 위한 연수 경험은?

- ① 있다. ② 없다.

9-2. 없다면 그 이유는?

- ① 기회가 없어서 ②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③ 시간이 없어서
- ④ 귀찮아서 ⑤ 기타 _____

10. 수업시 가장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분야는?

- ① 가창 ② 감상 ③ 창작 ④ 기악 ⑤ 음악이론

11-1. 상설적으로 특별 운영하는 음악 부서는?

- ① 관악부 ② 현악부 ③ 국악부 ④ 없음 ⑤ 기타 _____

11-2. 있다면 그 악기를 수업시간에도 활용하는가?

- ① 모두 활용한다. ② 대부분 활용한다. ③ 일부분 활용한다.
- ④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⑤ 활용하지 않는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and analyze music education in high school in Jeju Province, especially how many and how much Teaching Aids and Facilities are used in school music education, which is based on the Teaching Aids and Facilities' Standard proposed by the Office of Education Board in Jeju.

The significance of music education, the aims and contents of music education in the 7th curriculum are investigated, and the instruments proposed by the 8 Authorized Music Textbooks are compared. And further the Standards of Music Teaching Aids and Facilities are compared with those of each Office of Education Board in Korea. And the Teaching Aids and Facilities Standard of Jeju Province is investigated in specific and in detail.

On the basis of these studies, the survey for actual status of Teaching Aids and Facilities was conducted in Jeju Province. Of the 29 High Schools, most schools have music classroom. but only 8 high schools have music listening room. Most teachers required not only music classroom but also music listening room. Many teachers knew the Standard of Teaching Aids and Facilities, but in reality most of them expressed the shortage or lack of Teaching Aids and Facilities. Of the 16 teachers mentioned the shortage of Teaching Aids and Facilities, 10 teachers blamed the school administrator's lack of recognition. According to the specific survey for Teaching Aids and Facilities, no high school have all Teaching Aids and Facilities. The 25 high schools have regular music related extra curriculum team, but most of them do not use music instruments.

According to the survey of actual conditions of High School music education in Jeju Province, the problems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are proposed as follows.

First, The teachers are more required the positive attitude for acquiring more educational Teaching Aids and these Aids must be used more effectively, and School Board and District are needed to

accept the demands of teachers.

Second, the future education must be moved from the passive system of the current cramming and memorizing education to the affirmative student -centered learning activities.

Third, so many teachers are experienced in difficulties in music education owing to the insufficiency of Aids and Facilities and the lack of response of students.

Fourth, The teachers are required to make constant efforts to become competent teachers through study and training for improving practical skills, and School District must offer the various training opportunities for the teachers.

Fifth, the change of educational policy and financial supports must be needed for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high school music education on the basis of the appropriate Aids and Facilities. These Aids and Facilities must be expanded and improved and further used more effectively by teachers.

Therefore more study is required to apply the above major findings to the educational field.